

## 북한은 왜 미국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쏘았는가?

### 서 재 진

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미국독립기념일에 북한은 미국 쪽을 향하여 미사일 7발을 발사하였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북한의 의도가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은 이미 나와 있다. 북한은 미국과 무슨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런 극단적인 군사적 행동을 하였는가?

북한 당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경제사회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 경제난 때문에 암시장이 번성하고, 시장이 극성을 부리자 사회통제가 안되고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사회주의도 자신의 정권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일은 이제 깨닫고 있다. 경제 회생을 위하여 대내개혁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생산요소의 수혈이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수혈은 핵문제, 인권문제, 위폐문제로 막혀있다.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이 실천된다면 얻을 수 있는 보상도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아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북한은 모두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때 얻어낸 제네바 합의와 미사일 관련 합의를 적극 실천하고 미국과 국교수교를 이루어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결정적인 실수를 한 셈이다. 김정일은 아직도 핵포기와 핵카드 활용의 양단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해 놓고 핵문제 관련 전략적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대화를 한번 하자고 미국에 대화를 종용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대화를 촉구하게 하는가?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미국에게 다른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타겟이 되고 있다. 미국의 타겟은 사실은 중국이지만 북한이 대리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방어)체제의 표면적 타겟도 중국이지만 북한이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타겟을 상실한 SDI(전략방위구상)가 북한에서 새로운 타겟을 찾게 된 셈이다. 1992년 11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미국이 제기한 이후, 1993년 5월 노동1호 미사일 발사, 그리고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 등으로 북한은 확실하게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의 주된 타겟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정치인과 군사지도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포동1호 발사 덕분에 부시행정부는 2001년 출범과 동시에 클린턴 정부때 유보되었던 MD체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9·11이후는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핵문제를 대테러전쟁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의 협상 요구를 외면해왔다. 작년 9월 19일 가까스로 6자회담에서 협상이 성사되었지만 때마침 제기된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 때문에 다시금 6자회담 틀마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위폐 문제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왜 핵문제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들고 나왔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미국의 이런 행동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명분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부시행정부의 폭정의 종식, 자유의 행진이라는 대외정책을 더욱 정당화시켜 주고 강화시켜주는 소재로 활용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정당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난, 국제사회의 고립 등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감행한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얻을 것도 별로 없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관심을 끌지는 못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이라크와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 문제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대북 금융제재를 더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넓혀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임할 것이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상쇄할 수 있는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여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극단적 벼랑끝 전술을 제어하는 방안은 미국이 강경책을 버리고 포용정책으로 바꾸는 길이다. 그러나 세계유일 초강국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이 안되는 일로 정책을 바꿀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미국을 달래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며, 통일이 되어도 미국의 우방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동북아 지역 균형자 역할을 위하여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한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본질을 재점검하고 대미정책, 대북정책의 큰 줄기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